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상 분석

제주 전과기록 42%... 여성, 7명 중 1명꼴

8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 52명... 민주당 32명 최다
평균나이 51.8세... 여성비율 전국보다 낮은 13.5%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예비후보들 중 40% 이상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관련 자료를 분석 공개하고 있는 '모두의 선거'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주지역 도지사·교육감·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총 52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정당별로는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제주시 지역에는 민주당 20명, 국민의힘 5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 등록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사 선거에는 현재까지 진보당 김병호 예비후보, 소나무당 양

윤녕 예비후보가 등록했고, 교육감 선거에는 송문석, 고익숙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선거기간 전에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 분석 결과, 이들의 평균 나이는 51.8세로 평균 55.2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 중 여성은 13.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 21.6%보다 8%p 가량 낮은 수치다. 전과기록의 경우 제주지역에 등록된 예비후보의 42.3%가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35.5% 보다 높았다.

직업은 정치인·정당인이 28.8%를 차지했고, 농축산업 11.5%, 무직 9.6%, 운수업 3.8% 순이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8.5%, 대학원졸업 30.8%, 전문대졸 11.5%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최고령 예비후보는 도의회 구좌읍·우도면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강동우 예비후보로 1956년생, 만 69세다. 최연소 예비후보는 제주시 연등을 도의원 선거에 나선 진보당 정근호 예비후보로 2007년 1월생 만 19세다. 부미현기자

도의원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5)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원도심 활성화' 공약으로 표심 대결



민주당 정민구 3선 노려
강원근, 당내 공천 재대결
국민의힘 윤용팔 재도전
이재성 정치 신에 출사표

가장 큰 지역 현안"이라며 "건강주치의에 호스피스까지 연계한 생애주기별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세계 평화 인권 기본 조례 제정,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결 속에 거대 양당의 당내 후보 공천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 중 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직인 정민구 의원(58)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당내 공천 경합을 벌였다 탈락한 같은 당 강원근 삼도2동체육회장(41)도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재대결을 펼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던 윤용팔 삼도1동장애인지원협의회장(62)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정치 신에인 같은 당 이재성 삼도2동주민자치위원장(52)도 출사표를 내면서 물러설 수 없는 당내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

예비주자들 모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저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민구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 고령화 사회 대응 인프라 시설 마련, 정주 환경 여건 개선 등이

강원근 예비후보는 "인구 감소, 고령화, 주차 문제 등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해 활기찬 동네를 만들겠다. 또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경로당을 비롯해 복지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필요한 장소에 공영주차장 복합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팔 예비후보는 "가장 큰 과제는 주차 문제와 경기 침체 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공유지·공터 등을 매입해 주차타워 시설을 추진하겠다. 또 관덕정 등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돌봄시스템 확장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구도심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성 위원장은 "문화예술이 지역에 녹아나지 못하는 것과 고령화 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이라며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 상상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 또 어르신들의 경험·노하우를 활용해 가족친화도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보도. 정리=삼도일보 김동진 기자>

출산을 반등... 인구정책 '속도'

도, 올해 4150억 투입해 132개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생애주기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4000억원대 규모의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최근 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인구정책종합계획(2025~2029년)에 따라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 체제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도는 올해 27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12개 분야 132개 사업에 총 4150억원을 투입한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3명에서 0.87명(잠정치)으로 상승하며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반등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인구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는 미래산업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청년 성장 기반 마련 등에 주력했다. 항공우주산업 거점 조성,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 신산업 일자리를 확충했고, 휴가지 원력근무(위케이션) 참여자 10만

명, 디지털 관광증 가입자 11만명을 넘어서며 생활인구 확대에도 성과를 냈다.

올해는 전략별 정책을 보다 강화해 추진한다.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제주형 협약(에너지), 제주 스타크리에이터 육성, 함께은제주 농어촌유학, 1학생 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이 제주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와 교육 기반을 확대한다.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에 집중한다. 제주 배움여행(런케이션) 청년유입 사업과 로컬관광 자원을 연계한 위케이션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 온라인 장구 구축과 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지원 등 외국인과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손주돌봄수당,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가지원센터 설치,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주민참여형 안전·안심마을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김재현기자



문대림 국회의원이 지난 7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소범기자

문대림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출마 선언 "민생 살리고 도민주권 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는 민생을 살리고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 '위대한 도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문 의원은 "12·3계엄 당시 제주도지사는 3시간이나 집무실을 비우고 도청을 폐쇄했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하고 무책임하게 등을 돌린 도지사를 바꿔야 한다"며 오영훈 도정에 대

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4년 전 우리는 20년 만에 민주당 도정을 탄생시켰고 새 도정에 희망을 걸었지만 지금 오영훈 도정은 실패했다"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최악의 건설 경기, 청년 유출, 소상공인 위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무산, 섬식정류장 추진, 제주-청다오 화물선 등 오도정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무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도민의 밥상을 챙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미래"라며 '회복과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한 12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17일 제주항 100주년 토론회

제주항 개항 100주년 정책토론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항의 미래 역할 재정립 및 제주신항과 배후 도

시 연계 상생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며, 2027년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마련됐다. 그간의 역사적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항만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그랜드보청기

'2026년 병오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진형 권속형 보청기 | 충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총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립니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털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